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전임강사 열 혜 정

目 次

I. 서 론	V. 결 론
II. 시대적 배경	참고문헌
III.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 경향	ABSTRACT
IV. 1980년대 텍스타일의 특징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80년대는 복식의 조형 및 산업 구조에 있어 커다란 전환의 시기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성복 산업은 급격한 발전으로 60년대에 서 70년대를 걸쳐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으나, 80년대에 이르러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패션의 개성화와 차별화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성복 산업은 그 동안의 양적 팽창기로부터 질적인 성숙기로 방향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과거의 대량 생산 체제에 가리워 있던 제반 가치들이 새롭게 재 평가 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복의 텍스타일 부분으로, 과거에 중시되었던 극히 표준적이고 물리적인 특성 외에도 표면상의 다양한 변화와 복잡이 요구되어 텍스타일은 의복의 소재라는 부차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의류 제품의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부분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70년대까지

텍스타일의 주 평가 기준이 수치상의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면 80년대부터는 인간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부가시킴으로써 텍스타일의 창조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텍스타일 경향은 새로운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일본 통상성 산하의 섬유공업구조개선사업협회는 92년 12월에 발행한 「アパレル研究(Apparel 연구)」란 연구지에서 일본내 학계, 산업계의 텍스타일 전문인을 중심으로 「텍스타일 부회(部會)」를 새롭게 구성한 것을 알리며 'Textile Creation'이란 제목의 특집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¹⁾ 내용에 의하면 텍스타일을 단지 의류의 소재로만 인식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예술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차별화, 개성화된 텍스타일을 생산하는 데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그 설립 취지로 삼고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 경향을 보아도 지금까지 발표된 텍스타일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 중 텍스타일의

* 이 논문은 1997년도 전북대학교의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アパレル産業振興センター編, アパレル研究22, 東京:纖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 1992.12, pp.54-123

물리적, 기능적 측면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디자인 및 예술적 관점으로부터 접근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²⁾³⁾⁴⁾⁵⁾

이에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텍스타일이 패션의 특성을 결정짓게 됨으로써 텍스타일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관점 하에 우선 80년대 패션의 흐름과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텍스타일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이 부각하게 된 배경을 시대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텍스타일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경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과 표현 방법을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80년부터 89년까지를 연구 시기로 하였으며 연구 자료의 지명도와 일관성있는 자료 수집의 편의상 일본의 패션 전문지인 갭(Gap)을 주 연구 자료로 하여 그 중 파리, 밀라노 컬렉션에 대한 트렌드 분석 및 프르미에르 비종(Première Vision)⁶⁾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였다. 사진 자료는 일본의 패션 전문지인 하이 패션(Hi Fashion)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내의 패션 전문지 및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II. 시대적 배경

80년대로 들어서며 패션은 더욱 다양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패션을 어느 한 스타일로 특성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컬렉션이나 거리에서 등장한 수 많은 패션들은 80년대 특유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결

국 소재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당시의 패션 경향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시대적 배경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의 상승 지향과 고급화 경향

전반적으로 80년대는 70년대를 지배했던 경제적인 침체와 사회적 긴장, 대중의 불만 등에 대한 반동의 시대였다. 80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선출은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고 수입과 성장(盛裝) 차림을 의미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⁷⁾ 이보다 한 해 앞서 79년 영국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를 신임 수상으로 맞이하였고 이를 상징이나 하듯 전례없이 많은 여성들이 고급 관료와 기업의 관리직에 진출하였다.⁸⁾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적이고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게 됨에 따라 전문직 여성들은 80년대 패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의 의복은 폭 넓은 어깨 라인과 패드가 들어간 말끔한 슈트에 스커트와 넥타이, 짧은 머리형과 같은 소위 '힘을 상징하는 의복(Power Dressing)'이라 일컬어지는 스타일로 점차 남성의 비즈니스 웨이에 접근하여 갔다.⁹⁾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하여 80년대 패션은 전반적으로 차갑고 어둔스러운 클래식한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의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재정적 지원자들이 더 이상 10대의 영마켓(young market)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다 고가의 의복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직 층을 의식하기 시

2) 문미영, '인도네시아 이kat 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1995.11

3) 이주현, '포스트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1

4) 이인성, '일상적으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와 테크닉에서 살펴본 의상창작과 예술',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 1

5) 이효진,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권, 1997.5

6) 프랑스 파리에서 연 2회 열리는 국제 소재 전시회.

7) Vicky Carnegy,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London:B.T.Batsford, 1990, p.6

8) 南 精, パリモ-ト200年Ⅱ, 東京:文化出版局, 1990, p.212

9) Jennifer Ruby, The 1980s, London:B.T.Batsford Ltd., 1990, p.5

작한 것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다. 그 예로 여피(Yuppies)라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지향을 가진 20대, 30대의 고급 전문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신조어가 만들어져 열심히 일하고 부유하며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특징을 그려냄으로써 자동차로부터 인스턴트 커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품 광고에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¹⁰⁾ 그에 따라 패션은 진지한 것이어야 했으며 사회적 성공을 최첨단의 의복과 장신구로 과시하는 것이 당시의 패션 경향이 되었다.¹¹⁾

이상의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80년대 전반에 걸쳐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이너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가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80년대에는 감성과 질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들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들은 크게 개성적인 조형력과 특이한 소재와 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아방가르드한 패션과 상류 지향의 보수적인 패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의 상승지향과 유희와 풍요로움이 전면에 내세워져 60년대와 70년대의 캐주얼화 경향으로부터 귀족 취미의 고급 정장차림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패션의 본질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전통적인 브랜드와 상품의 지향, 패적성의 추구, 질 좋은 봉제와 테일러링, 형과 디자인에의 높은 안목 등 사람들의 관심이 의복의 질에 대한 문제로 모아졌다.¹²⁾ 따라서 80년대를 통해 사람들은 의복의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의복의 소재나 색상, 텍스처 등이 의복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었다.

2. 예술과 역사, 문화지향

80년대는 회화, 문학, 역사, 음악, 영화는 물론 신화와 전설 등 과거의 문화 유산으로부터 현대예술에 이르기까지 복식이 80년대의 문화상황이나 예술사조와 깊이 서로 관련하여 문화와의 교류를 심화시켰던 시대이다. 특히 복고풍의 유행을 반영하여 대규모적으로 개최된 회고전과 예술전의 영향으로 중세로부터 세기말 역사의 예술양식, 20세기 초로부터 60년대까지의 복고적 스타일, 바우하우스와 50년대의 모던 디자인의 재인식, 입체파, 미래파, 구성주의, 인상파, 초현실주의 등과 같은 예술운동 등이 80년대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¹³⁾ 예를 들어 89년 말 뉴욕의 FIT에서 열린 'Historical mode'전은 80년대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였으며¹⁴⁾ 89년 교토(京都) 국립 근대 미술관에서 열린 '화려한 혁명'이란 의상전은 당시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맞이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로코코 시대의 의상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다른 시대에도 복고풍이라 하는 것은 흔히 있었으며 과거의 시대를 인용하여 복식에 새로운 해석을 가한 예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는 과거의 모든 양식을 나열하여 그것으로부터 현대라 하는 시대 상황과 디자이너의 의식에 적합한 것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새로운 절충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80년대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과거 양식을 혼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도 에스닉 문화의 유행을 배경으로 한 민족 예술과 원시 예술의 주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예로 84년 가을 뉴욕 근대 미술관 등에서 열린 '20세기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전은 이와 같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었다.¹⁵⁾

10) Vicky Carnegy(1990), p.32

11) 앞글, p.6

12) 現代構造研究所編, テキスタイル・クリエーション(2), 東京:繊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 1991, pp.8-9

13) 앞글, p.9

14) 深井晃子, ファッション・キーワード, 東京:文化出版局, 1993, pp.287

이상과 같은 조형적 특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일컬어지는 예술 조류와 관련되어 80년대에는 패션에서도 역사상의 여러 양식으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도입한 스타일이 현저히 나타났다. 그리하여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마틴 시본(Martine Sitbon)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역사적 양식을 대거 도입하였으며 프랭코 모스키노(Franco Moschino),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야마모토 요지(Yamamoto Yohji), 노마 카말리(Norma Kamali) 등도 계속적으로 먼 옛날의 과거로부터 가까운 60년대와 70년대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도입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80년대 말 로메오 질리(Romeo Gigli)가 화려한 비잔틴, 르네상스, 오리엔탈리즘이 서로 혼합된 스타일을 보이며 정점에 달하였으며 그 후 곧 서양의 쿠티르적 전통에 밀바탕을 둔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의 신장식주의로 발전하여 갔다.

이와 같은 80년대 패션의 조형적 움직임은 무엇보다 장식성의 재 인식과 부활이 특징으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기능과 장식이란 주제가 다시금 커다란 테마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¹⁵⁾ 그리하여 80년대에는 패션 디자인의 형과 색 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 기능성과 합리성 외에도 인간의 감성과 시각적 측면과 결부된 유희성과 장식성이 중시되어 외면상의 다양한 변화와 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신기술과 감성의 접목

80년대에 들어서며 전세계는 60년대로부터 시작된 대량 소비 사회라 하는 종래의 경향으로부터 탈공업화 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다. 탈공업화 사회란 공업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인간 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¹⁷⁾를 말하며,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는 양(量) 중심의 소비 형태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정보를 중시하는 질(質) 우선의 소비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80년대에는 정보의 축적과 전달 등을 향상시키는 전자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고도의 과학 기술을 주축으로 하거나 그것에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불어넣은 하이 테크(high tech)¹⁸⁾, 하이 터치(high touch)¹⁹⁾ 스타일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즉, 합리적이며 기능 본위의 모던 디자인에 자유로운 감성과 유희감을 불어넣은 감각을 말하는데²⁰⁾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면 될 수록 그 반동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²¹⁾

이와 같은 흐름은 당시의 사회적 경향과 결부되면서 다음과 같은 패션을 창출하였다. 우선 고감도 사회, 감성 사회라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사람들의 감성과 기호가 뒷받침되어 이성보다는 오감(五感)에 호소하는 것이 패션의 특징을 크게 좌우하게 되었다.²²⁾ 그리고 신세대, 신인류 등과 같이 왕성한 소비력과 감성력을 가진 젊은 세대가 등장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패션에 있어서도 기존 양식과는 다른 신선한 감각이 요구되었다.²³⁾ 그리하여 무채색

15) 앞글, pp.222-3

16) 現代構造研究所編(1991), p.9

17) 荻村昭典, 服裝學への道しるべ, 東京:文化出版局, 1987, p.17

18) 하이 테크란 하이 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의 약칭으로 디자인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한 미래지향적인 전위 감각을 말한다.

19) 하이 터치란 고감도(高感度)라는 의미로 하이테크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감성을 가리킨다.

20) 日本流行色協會編, "戰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月刊流行色, 東京:日本流行色協會, 1993, p.64

21) 조규화 편저(1995), p.681

22) 現代構造研究所編(1991), p.8

23) 廉惠晶, 荻村昭典, 'ファッション理論から見たカジュアルウェアの變化構造',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學會 Vol 3: 東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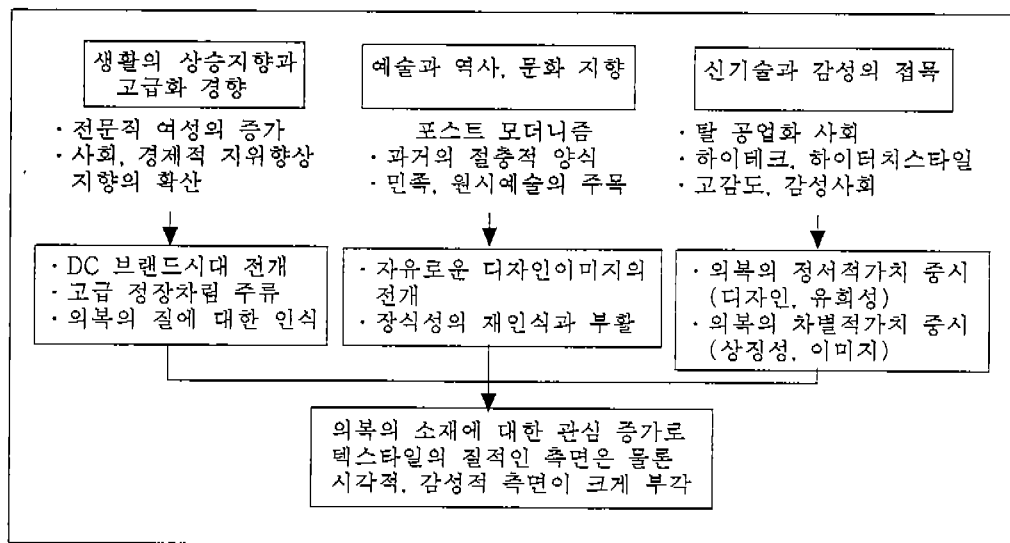
이 하이 테크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인기를 모으고 비대칭, 비조화와 누더기 감각 등이 의복의 형태에서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구되었다. 특히 소재의 면에서는 실의 디자인이나 직물의 조직, 후가공 기술 등을 통한 다양한 질감의 표현에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으며, 컴퓨터 자카드와 같이 종래의 염직물에 현대 최첨단의 기술을 구사한 소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외에도 70년대부터 시작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보다 유행성 있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요구를 낳았는데 80년대에는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과 표현성을 도입한 패션이 대거 등장하였다.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잇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을 위시한 여러 디자이너들은 인간성의 회복과 신체감각의 재인식이란 가치 하에 깔끔하고 기능적이며 단순한 스포츠 감각을 도입한 작품을 발표하였다.²⁴⁾ 그리하여 스포츠 웨어가 갖는 대담한 신체 표현과

속도 감각 등은 80년대 패션에 다양하게 이용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스웨트(sweat)과 저지(jersey)와 같은 소재 외에도 쾌적성, 활동성,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스포츠 감각의 소재가 꾸준히 개발되어 스포츠 웨어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80년대의 사회 문화적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패션은 전반적으로 기능성과 내구성, 경제성과 같은 유용적 가치로부터 디자인과 유희감각을 내세운 정서적 가치, 그리고 상징성과 이미지를 살린 차별적 가치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텍스타일은 종래의 부차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고 창조적인 복식 조형을 구축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 다양하고 대담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이후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과 패션성은 디자이너 특유의 감성과 개성 외에도 소재의 독창성에 의해 창조된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을 간추려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80년대 텍스타일의 시대적 배경



1997.12, pp.102-3

24) 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編, 'スポーツウェア', 装苑アイNo.11, 東京: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 1993, p.7

Ⅲ.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 경향

본 장에서는 80년대 패션의 흐름 속에서 텍스타일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통산성 산하의 섬유공업구조개선사업협회가 발행한 연구지²⁵⁾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80년대의 패션의 흐름을 크게 4기로 나누었다. 시기별로 나타난 텍스타일의 경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1980-82년 : 자연 지향과 구축적 조형미의 혼합기²⁶⁾

1) 자연 지향의 기능적 소재

80년부터 82년에 걸쳐 콜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 등이 퀴팅 슈트와 데님의 사파리 재킷을 선보이고 잇세이 미야케는 부직포에 레저와 모피를 겹쳐 사용한 빅 코트를 발표하는 등²⁷⁾ 70년대부터 주목을 모았던 자연 지향의 패션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개성적인 표현으로 응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79년 추동, 에너지 절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의복 자체도 캐주얼하고 입기 쉬우며 따뜻한 느낌이 중시된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패션에 이용한 의복 스타일이 인기를 모은 것도 배경으로 하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캐리어 우먼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패션이 뉴욕을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다운(down)을 넣은 재킷과 모포로 만든 코트 등이 인기 아이템으로

등장하였으며, 텍스타일에 있어서는 니트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외에도 더블 페이스(double face)의 퀴팅, 곱슬거리고 드라이한 느낌의 방모 소재, 레저 등이 각광을 받아 이들의 질감과 촉감을 서로 겹쳐 표현한 코오디네이트법이 다양하게 구사되었다.

이는 대개 스포티 스타일로 남성복의 밀리터리와 사파리 외에도 스포츠 웨어가 다양하게 이용되어 쾌적함과 착용감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텍스타일에 있어서도 방수, 방한, 통기성을 중시한 쾌적한 소재가 추구되는 가운데 다운, 가죽, 신축성있는 니트가 대두되었다.(그림 1)



〈그림 1〉 퀴팅 소재의 스포츠 웨어
Hi Fashion(81.8), p.67

2) 50년대풍 매니시 소재

80년대 초반에는 70년대를 상징하는 자유와 캐주얼

25) 現代構造研究所編(1991), pp.8-21

26) 이 시기는 아직 80년대 특유의 특징은 보이지 않고 70년대 전반에 걸친 자연주의 경향과 7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V자형의 구축적 패션이 그대로 계속되며 각각 개성화, 다양화 양상을 띠었던 시기이다. 편견에 따라서는 구축적 패션만을 80년대 초기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특히, 텍스타일과 관련지어 볼 때 이 두 경향은 80년대 전반을 통한 텍스타일의 전개에 큰 흐름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 지향과 구축적 조형미의 혼합기라 규정하였다.

27) 織田 晃, パリコレクション20, 東京:織研新聞社, 1996, pp.154-6

얼화에 대한 반동으로 명쾌한 기하학적 라인과 매니시 감각을 살린 패션이 대두하여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와 고품질의 소재감 등을 추구하였다. 특히 디오르, 발렌시아가 등을 중심으로 한 50년대 오트 쿠튀르의 구축적인 조형 감각의 재인식, 그레이스 켈리, 킴 노박 등의 황금시대 할리웃의 여배우들로부터의 영향, 50년대 미국 동해안 상류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캠퍼스 스타일, 50년대 당시의 타운 웨어, 서해안의 청년문화 풍속 등 이러한 패션을 모던 클래식이라 부르고 80년대 패션의 기초를 형성하였다.²⁸⁾



〈그림 2〉 멜랑주 터치의 소모 슈트
Hi Fashion(82.2), p.74

이와 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텍스타일도 역시 진품의(authentic), 전통적인(traditional), 편안함(comfort)을 주제로 하여 영국풍의 남성복 소재에서 영감을 얻은 트위드(tweed), 헤링본(herringbone), 타탄 체크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흑백의 체크, 작은 기하학 무늬의 도비, 멜랑주(mélange)²⁹⁾ 터치의 소모, 블랭킷(blanket) 등의 방모 기모 소재, 스웨이드(suède)터치의 얇은 기모 소재, 동물의 털을 이용한 모헤어(mohair), 앙고라(angora), 캐시미어(cashmere), 카멜(camel)의 고품질 소재 등 전체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정통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다.(그림 2) 캐주얼 웨어에 있어서도 셔츠 스트라이프와 파자마 소재 등의 셔츠 소재, 중고풍으로 선 워시된(sun washed)³⁰⁾ 면 소재와 50년대의 알로하와 트로피칼 프린트 등이 부각되었으며, 프린트에서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꽃무늬와 물방울 무늬 외에도 50년대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등장하였다.

3) 20, 30년대풍 페미닌 소재

80년대 초반 뉴 로맨틱리즘(new romanticism)³¹⁾ 경향이 유행되면서 7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폭 넓은 어깨를 특징으로 하는 V자형의 구축적 실루엣에 부드러움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이는 어깨를 넓게 하고 허리를 조인 기존 형태에 소재나 디테일의 면에서 부드러움을 가미한 것으로 플레어, 개더, 프릴, 서링 기술을 구사한 긴 스커트와 블라우스, 와이드 팬츠, 카라코(caraco)³²⁾, 크게 부풀린 소매가 달린 해적풍 셔츠 등이 복고풍 감각과 함께 등장하였다.³³⁾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아르데코 양식에서부터 30년대의 베를린 풍속 스타일, 할리웃 여

28) 現代構造研究所編(1991), pp.12-3

29) 불어로 '혼합한, 교직의'란 뜻으로 서리가 내린 느낌의 색조로 혼방 또는 혼색된 실 및 직물류를 총칭한다.

30) 햇빛에 쬐여 색을 바래게 하는 기법

31) 핑크 이후 영국의 나이트 클럽을 드나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 해적과 루이 14세 등과 같은 스타일 원천을 갖고 있으며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와 우아함. 그리고 정성 들여 장식한 복장 등이 특징이다. 81-2년 추동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에서 영감을 얻은 해적(Pirate) 컬렉션을 개최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32) 18세기 후반에 유행한 여성용 재킷. 짧은 길이에 몸에 꼭 맞으며 밑 자락이 넓게 플레어된 것이 특징이다.

33) 織田 晃(1996), pp.154-6

배우들의 매력적인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80년대 초반에는 복고풍의 회고 취미가 확대되었다.³⁴⁾

이와 같이 디자인의 강조점이 어깨 선으로부터 허리와 힙으로 변화함에 따라 텍스타일도 또한 촘촘하고 뻣뻣한 것으로부터 신축성과 드레이프성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다. 또한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역설에 의해 20, 30년대를 중심으로한 복고풍의 페미닌 소재와 앤틱 풍의 소재가 재인식되어 특히 실크가 다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키 도비(silky dobby), 새틴 등의 광택 소재,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부드럽고 유동적인 소재, 크레이프(crepe)와 조젯(georgette) 등의 강연 소재, 보일(voile), 마트라세(matelassé) 등 표면을 오목볼록하게 변화시킨 소재, 아르데코 무늬의 장식 자카드와 니트, 회화풍 프린트와 회고풍 꽃무늬, 스팅글과 자수, 레이스 기법 등을 들 수 있다.(그림 3)



〈그림 3〉 복고풍 페미닌 소재의 원피스
Hi Fashion(82.2), p.76

4) 60년대풍 스포티 소재

이 시기에는 그 때까지 기능 일변도의 스포츠 캐주얼과 거친 느낌의 캐주얼이 퇴조하고 도시 감각의 젊고 명쾌한 스포츠 패션이 나타났다. 이는 60년대의 영향으로 더욱 뚜렷히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당시 화제를 모은 영화 '그리스(grease)'에 나오는 모즈(Mods)와 로커(Rocker)들의 다양한 아이템, 미니 스커트 등과 같이 '흔들리는 60년대(swinging sixties)'라 일컬어지는 히피 이전의 시기가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미니스커트의 부활과 함께 60년대의 바디 컨셔스 라인이 등장하고 팝 아트의 유희 감각과 옴 아트의 흑백 그래픽 감각, 테디 보이(Teddy boy)들의 재킷과 블루종, 중고풍 감각의 진즈,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등과 같이 60년대의 모던하고 유희감각을 강조한 패션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텍스타일도 60년대를 대표하는 저지 니트를 필두로 하여 스웨드 저지, 메탈릭 합섬과 하이테크 합섬, 벨루어(velours), 브러시드 코튼(brushed cotton), 데넬과 인디고, 바틱 프린트(batik print), 피케(pigüé) 등의 오목볼록 소재, 샴브레(chambray), 동물과 풍경 등의 구상 무늬 프린트 등이 인기를 모았다.

2. 1983-85년 : 아방가르드기³⁵⁾

1) 러스틱(rustic) 아방가르드 소재

80년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 합리, 탈 기능주의적 동향으로 원시적인 정서와 과거의 예술 양식을 재인식하고 이를 하이테크의 첨단성과 통합, 절충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려고 하는 일대 조류이다. 이는 이 시기의 패션에도 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34) 現代構造研究所(1991), p.12

35) 레이 가와쿠보와 야마모토 요지가 무채색의 파피, 빈곤주의 패션으로 파리 컬렉션에 데뷔한 83년부터 장 폴 고티에 등에 의한 인드로지너스 패션이 주목을 모았던 85년까지를 아방가르드 패션기라 규정지었다.

그 중 한 예가 빈곤주의(povertism) 패션이다. 레이 가와쿠보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일부러 구멍을 내어 갈기 갈기 찢은 소재를 사용한 누더기 룩을 선두로 하여 중고 옷과 색 바랜 엔틱 룩, 러시아 혁명기의 가난한 노동자 스타일과 매니시 스타일, 20세기 초반의 방랑자와 흑색으로 몸을 감싼 실존주의자 스타일 등³⁶⁾ 이 시기는 빈곤과 파괴를 상징하는 스타일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스타일들은 대부분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이라는 이질적 요소로 반체제와 반전통을 표명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레이 가와쿠보의 누더기 옷에 사용된 불규칙한 구멍과 직조 방법은 "치밀한 의도와 기술에 의한 결과이며 현대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완벽성에 대한 거부"³⁷⁾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4)



〈그림 4〉 러스틱 아방가르드 소재
Women of Fashion(91), p.184

그리하여 이 시기는 '전원적이고 소박하며 거칠고 불규칙한'이란 의미의 러스틱한 소재군이 눈에 띄

게 증가하였는데 그 영감의 원천은 사막과 모래 등과 같이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요소가 중심을 이루는가 하면 남 프랑스와 일본풍 등이 가미되었다. 예를 들면 여러번 빨아 낡고 바랜 느낌과 오래 입은 듯한 효과, 원시에 대한 향수, 불규칙하고 거친 직조 등이 중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멍 난 니트와 망사, 드라이한 느낌의 트위드, 낡은 느낌의 기모 소재, 거친 직조의 면, 마, 캔버스(canvas)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재에 비틀기와 주름 가공을 하거나 무채색, 흐릿한 색조의 색상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야성적인 프린트, 반다나, 크고 작은 체크 등이 나타났다.

2) 예술 감각의 소재

이 시기의 패션 산업은 실용보다 오감에 호소하는 요소가 의복의 가치를 좌우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감각 등의 개별적 특성을 중시한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가 확산, 정착되는 등 개성에 중점을 둔 패션의 가치관이 확립되었다. 그와 함께 소재도 또한 단 사이클, 소 로트(lot), 다품종 경향이 중시되었으며 기성의 가치를 초월한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 예가 소재가 갖는 원초적인 특성과 현대의 하이테크를 접목시킨 것으로 이러한 시도에 의해 기존 텍스타일의 파괴와 창조가 다양하게 행해졌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바티크(batik), 이카트(ikat) 등과 같은 민속풍의 프린트와 수공예적인 텍스타일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표면 효과를 위해 모든 기법과 조직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목 볼록감이 있는 크레이프(crepe)와 피케(piqué), 리플(ripple), 엠보스(emboss) 외에도 별집과 같은 허니 콤(honey comb)과 컷 워크(cut work), 릴리프(relief)³⁸⁾(그림 5) 등이 이용되어 텍스타일 아트

36) 現代構造研究所編(1991), p.13

37)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NY:Rizzoli, 1991, p.186

38) 무엇인가를 집어넣거나 스티치를 가하여 부분적으로 무늬를 강조함으로써 부조와 같은 입체적인 효과를 낸 자수 기법의 일종



〈그림 5〉 릴리프 효과의 니트 스웨터
Hi Fashion(87.6), p.117



〈그림 6〉 예술 감각의 소재 I
Hi Fashion(83.6), p.21



〈그림 7〉 예술 감각의 소재 II
Hi Fashion(83.6), p.21

라 불리울 정도로 모든 기법이 구사되었다. 또한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란 고정 관념을 탈피한 앤드로지너스 룩이 전개된 것을 배경으로하여 남성적인 소재에 여성적인 느낌을 준 소재가 인기를 모았다. 이는 실의 꼬임과 굵기에 변화를 주거나 미묘한 색상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 것으로 예를 들면 부클레(bouclé)나 멜랑주(mélange),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의 소재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사와 화가들이 그린 것 같은 색채 반점과 형태가 불확실한 반점 무늬, 구겨진 종이와 같은 효과, 붓 터치, 알파벳과 그래픽적인 문자를 조합시킨 프린트 등 종래의 기성관념을 넘은 표현들이 대거 등장하였다.(그림 6, 7)

3. 1986-87년 : 미니멀리즘과 신고전주의기³⁹⁾

1) 도시 감각의 미니멀 소재

80년대 중반부터는 최소의 조형 수단과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서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⁴⁰⁾이 회화, 문학, 음악 등의 전영역에 걸쳐 다시 등장하였다. 특히 패션에서는 뉴욕의 건축가 출신의 디자이너 조런(Zoran)이 아메리칸 미니멀리즘을 개화한 것을 비롯하여⁴¹⁾ 전반적으로 패션은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어깨, 가슴, 등체, 다리 등 신체의 모든 노출가능한 부분을 전부 노출시키는 미니멀하고 섹시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소위 바다 컨

39) 80년대 중반은 그 동안의 반 서양, 반 전통적 개념의 패션 경향으로부터 서양 전통으로의 회귀가 나타난 시기로 86년 바다 컨서스 라인과 87년 로메오 질리 등에 의한 미니멀한 패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로메오 질리로 비롯된 서양 전통 지향의 패션 경향은 그 디자인 원천으로부터 신고전주의로 일컬어졌으며 88년 이후에는 크리스티앙 라 크로와를 대표로 하는 극단적인 신장식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니멀리즘과 신고전주의기라 하였다.

40) 케네스 베이커저, 김수기역, 미니멀리즘, 서울:열화당, 1993, p.16

41) 田中千代, 新服飾事典, 東京:同文書院, 1995, p.1022

셔스 패션 시대의 도래로서 그 예로 아즈딘 알라이어(Azzedine Alaïa)가 디자인 한 여성의 신체적 곡선미를 극대화시킨 모드는 '제 2의 피부'란 찬미와 함께 바디 컨서스 붐을 불러일으켰다.⁴²⁾

이러한 패션 경향은 무엇보다 소재 본래의 착용감을 중시하고 재단에 의한 단순한 디자인에 중점이 놓여져 모든 상황에 알맞고 도시적인 세련미도 겸비한 의복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착용자의 개성과 착장 방법에 중점을 둔 노마 카말리, 아냐에스 B(Agnès B) 등과 같은 기능적이고 단순한 패션이 캐리어 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⁴³⁾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는 개념 하에 텍스타일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단순 간결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무엇보다 착용감이 좋은 고품질의 소재가 우선시되었다. 예를 들면 basic & flat, hard & soft 등이 텍스타일의 주 테마로 등장하였고 이들 소재가 창조해 내는 구축적인 실루엣에 중점이 놓여졌다. 구체적으로는 소모, 개버딘(gabardine), 베니션(venetian) 등을 중심으로 하여 무지의 마, 실크로부터 선염의 작은 무늬, 무지와 같은 느낌의 선염 등이 유행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남성복에서 영감을 얻은 드라이하고 평면적으로 구성된 울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색상에 있어서도 무채색 외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미묘한 분위기의 파스텔 색상이 대두되어 무늬와 함께 색에 의한 미니멀화도 진행되었으며 광택이 있는 얇게 비치는 소재도 인기를 모았다.(그림 8)

2) 미래지향 스포티 소재

이와 같이 바디 컨서스 라인이 유행함에 따라 이에 미래 감각을 도입한 스포티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포



〈그림 8〉 도시 감각의 미니멀 룩과 소재
Hi Fashion(86.2), p.176

츠가 일반화되면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의복의 가치 기준이 피부와 같은 감각을 갖는 착용감이 좋은 것, 자기 표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다.⁴⁴⁾

디자인 원천으로는 SF영화와 르포르트, 기계, 미래 도시와 인간 등을 들 수 있으며 종종 인체공학 기술과 신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올림픽 선수들의 각종 유니폼들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조깅과 사이클링을 위한 스웨트의 쇼트 팬츠 등이 유행하였으며 육상 선수들의 레오타드(leotard)가 타운 웨어로 입혀지게 되었다.

텍스타일로는 신축적인 니트 저지를 비롯하여 코팅, 에나멜 등의 광택 후가공 소재와 방수 소재, 고무, 킴링 등의 기능 소재가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하이테크 감각의 금속효과와 금, 은색의 금속효과, 인공 피혁, 인조 코퍼 등, 기계적이고 차가운 소재들이 대두되었다. 그 동안 수영복과 레오타드 등에

42) Designer's File, Tokyo:Pia, 1993, p.110

43) Fashion Color編, Fashion Color(別冊), 東京: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 1993.10, p.10

44) 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編(1993), p.3

쓰여왔던 폴리우레탄 계통의 라이크라(Lycra)⁴⁵⁾ 소재의 인기는 이상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하겠다.(그림 9)



<그림 9> 미래지향 스포티 소재, 라이크라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90), p.49

3) 복고풍 장식 소재

87년 파리 컬렉션에서 로메오 질리가 부드러운 어깨 선의 소녀 룩을 선보이며 데뷔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단순한 신체미를 강조하는 바디 컨셔스 라인으로부터 신체를 부드럽게 감싼듯한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⁴⁶⁾ 신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부드럽고 소박한 여성미를 창출하는 로메오 질리의 디자인은 소프트 바디 컨셔스, 혹은 이탈리아 미니멀리즘 등으로 불리며 한편으로는 중세 취미와 고전적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신고전주의 패션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추럴 경향을 산출하며 90년대까지 이어져 갔다. 그 중 복고풍의 장식적 패션 경향은 88년 크리스티앙 라크로와가 호화로운 색채와 장식을 특징으로 한 패션으로 등장하면서 유희감각을 가미한 보다 활발하고 다채로운 패션으로 소재와 색채, 장식의 다양화가 더욱 진행하였는데 이를 신장식주의라 명칭한다.⁴⁷⁾

이상의 디자인 원천은 유럽 전통 지향이 강했으며 세기말적 분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19세기의 예술과 장식 스타일 외에도 로코코, 바로크로부터 중세, 그리스, 로마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⁴⁸⁾ 이와 관련된 텍스타일의 경향은 90년대까지 이어지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그 특성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기말풍 장식소재들로 아르누보와 라파엘전파, 빅토리안 왕조 양식, 상징주의 등이 디자인의 원천이 되어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여성미와 장식의 표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크레이프, 조젯 등 강연의 얇은 소재, 새틴, 태피터(taffeta), 벨루어 등 광택 소재, 실키 드레이프(silky drape) 소재, 시폰(chiffon), 보일, 오건디(organdy) 등 시스루(see through)의 투명한 소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기말 예술풍의 자카드와 태피스트리(tapestry), 가구, 인테리어의 장식적물, 금사가 들어간 라메(lamé)와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풍 프린트도 들 수 있다.(그림 10)

둘째, 비잔틴, 바로크, 로코코 장식소재로서 호화롭고 이국적인 비잔틴, 중후하고 장엄한 르네상스와 바로크, 화려한 로코코 등이 디자인 원천이 되었다. 특히 크리스티앙 라크로와의 장식적인 패션과 로메오 질리의 비잔틴풍의 패션이 성공을 거둬에 따라 호화로운 분위기와 쿠티르적인 장식을 위해 80년대 후반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등장한 테마이다. 따라서 텍스타일에서도 이전의 마와 소모, 단순한 무지 중심에 대한 반동으로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비잔틴 양식의 화려한 태피스트리, 자카드,

45) 미국 듀퐁(Dupont)사에서 개발한 폴리우레탄 섬유인 상표명. 원래 스포츠 소재였으나 아즈딘 알라이어 등에 의해 80년대 중반 하이패션에 이용되는 등 인기를 모았다.

46) 織田 晃(1996), pp.69-74

47) Designer's File(1993), p.90

48) Fashion Color編(1993.10), p.10



〈그림 10〉 19세기말풍 소재의 원피스 드레스 Hi Fashion(87.5), p.214



〈그림 11〉 트코코롬 레이스 소재의 원피스 Hi Fashion(87.5), p.212



〈그림 12〉 골드 메탈릭의 라메 재킷 Hi Fashion(89.6), p.57

벨벳, 벨투어 등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라메가 들어간 소재와 골드 메탈릭, 폴리츠, 주름 가공의 킬리프, 마트라세(matelassé), 브로케이드(brocade), 다마스크(damask) 등의 이국적 소재, 멜랑주(mélange), 부클레 등의 장식 트위드, 자수, 레이스의 장식 등이 계속하여 나타났다.(그림 11, 12)

셋째, 70년대풍 장식소재로서 70년대 미국의 대담하고 과대한 취미경향과 에스닉의 풍부한 아이디어가 응용되었다. 텍스타일로는 신축성있는 스모킹(smocking)과 엠보스, 림직한 꽃무늬의 저지과 동물 모티프, 에스닉풍의 프린트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린, 옐로우, 오렌지, 형광색 등 기발하고 화려한 색의 사용이 젊은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4. 1988-89년 : 에스닉과 자연주의(naturalism)기⁴⁹⁾

1) 영국 전통소재

90년대를 향해 세계의 패션 경향은 신체를 강조하는 바디 컨셔스 라인으로부터 신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듯 표현하는 우아한 실루엣으로 점차 바뀌었다.⁵⁰⁾ 이는 젊고 개방적인 분위기로부터 내추럴한 감성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지적인 성인 감각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지 아르마니(Georgio Armani)를 위시한 이태리 디자이너들이 세계의 주목을 끌으면서 전통적인 기술과 높은 질을 특징으

49) 88년부터 패션은 신장식주의가 전성을 이루는 한편, 자연주의가 대두되어 90년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에스닉 등의 이콜로지 패션이 주목을 모으기도 하였다. 본 시기는 신장식주의가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텍스타일의 측면에서 볼 때 신장식주의에 나타난 소재들은 앞의 복고풍 장식소재에 포함되는 경향이었으므로 그 특징을 이미 앞 시기에 함께 묶어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88년 이후의 시기를 에스닉과 자연주의기라 명칭하고 이와 관련하여 텍스타일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50) 織田 晃(1996), pp.166-70

로 하는 내추럴하고 클래식한 패션이 세계의 패션 경향을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용적인 디자인 보다는 아름다운 실루엣과 균형있는 프로포션, 고품질의 텍스타일이 패션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었고, 정통파, 쿠티르 감각, 고급 지향과 같은 말들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을 이탈리아 감각으로 세련되게 표현한 스타일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부드러움과 세련미를 가미한 영국풍 전통 패션과 전원풍 패션이 대두했다. 또한 아웃 도어(out door) 패션이 부활하고 수렵, 승마, 낚시 등 과거 영국 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풍, 그리고 소박한 니트 패션 등이 전통적인 영국풍 텍스타일과 함께 등장하였다.⁵¹⁾ 구체적으로는 소모의 트위드와 방모의 헤리스 트위드를 위시하여 모헤어, 앙고라, 캐시미어, 카멜 등과 같은 기모의 방모소재가 증가하였는데 이들 소재들은 무엇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특징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조와 같이 입체감을 낸 릴리프, 매듭과 루프 파일(loop file)을 넣은 부클레, 서리가 내린 듯한 펠랑주 등과 같은 표면 효과가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한편 프린트직도 급증하여 타탄(tartan), 헤링본(herringbone), 글렌 체크(glen check), 프린스 오브 웨일즈(prince of Wales), 윈도우페인(windowpane), 건 클럽 체크(gun club check) 등과 같은 남성복 소재는 물론 큰 꽃무늬와페이즐리, 캐시미어 소울의 전통 무늬 등이 인기를 모았다.

2) 소박한 전원풍 소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여성상을 추구하는 패션의 영향 하에 소녀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청순한, 순수한이란 의미의 이노센트 룩(innocent look)이 유행되었다. 80년대 말 로베오 질리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등이 남부 유럽풍을 위시하여 여학

생들의 교복 스타일, 케이커(Quaker) 교도의 소박한 전원 생활 스타일, 미국 남부풍 등과 같은 컨셉으로 표현하였는데 대부분 자연주의 패션에 소녀들의 순진무구한 감성을 도입한 스타일이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와 실루엣, 디테일 등이 내추럴 킨러와 함께 등장하였는데 특히 텍스타일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시폰, 오간디, 조켓, 크레이프 등이 여전히 중시되어 이들 소재로 자연스러운 어깨 패드와 완만하게 조인 허리선의 엘레강트한 실루엣과 드레이프, 플리츠, 플레어 등의 디테일을 표현한 것이 유행되었다.(그림 13) 그 외에도 리넨, 캔버스 등의 소박한 소재군이 새롭게 나타났으며 깡엄(gingham), 마드라스 체크(madras check), 바스켓, 식탁용 테이블 체크 등과 같은 자연스런 느낌의 전원풍 체크물과 손으로 짠 밀짚 등과 같은 텍스처 등이 인기를 모았다.



〈그림 13〉 이노센트 룩과 소재
Hi Fashion(88.1), p.56

51) 現代構造研究所編(1991),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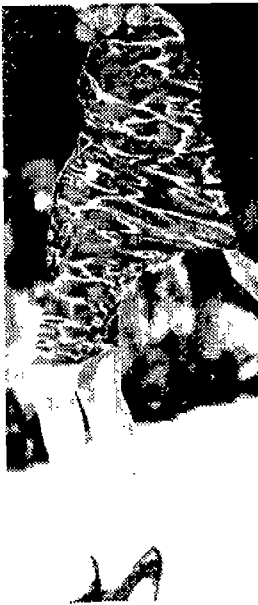
3) 에스닉, 이콜로지 소재

80년대 후반에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연을 의식한 이콜로지 패션이 나타났으며 이는 화장품, 향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⁵²⁾ 자연을 재인식한 사고와 표현법이 중요성을 띠게 됨에 따라 대지, 사막, 바다 등을 이미지로 한 패션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에스닉(ethnic) 패션이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를 테마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생태학(sea ecology)이 관심을 모으면서 수평 스트라이프의 티셔츠와 같은 마린(marin)과 노티컬(nautical) 스타일이 주로 여름의 레저 웨어와 스포츠 웨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따라서 텍스타일에 있어서도 바다를 이미지로 한 것이 인기를 모아 다양한 스트라이프의 니트, 돛 소재, 거즈, 보일, 친즈 외에도 스트레치와 코팅, 새틴의 광택소재와 스웨트, 저지류 등 하이테크의 합성 소재도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조개, 물고기, 파도의

거품과 파문, 해변의 작은 돌과 바위 등의 표정을 도입한 자카드, 도비직과 프린트가 증가하였으며 시네(Chiné)⁵³⁾와 표면을 두드린 효과 등과 같이 이들의 이미지를 텍스처에 이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4)

둘째, 남태평양과 카리브해, 아프리카로부터 멕시코 등의 중남미 지역, 터어키 등의 이슬람지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에스닉 패션이 등장하여 의복과 스타일과 텍스타일,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대부분 토착적인 민족의상을 그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세련된 무궁적용으로 혼합 응용되어 표현되었는데 텍스타일에서는 자카드와 린넨, 샴브레 등과 같은 소재와 함께 바티크와 이카트, 인도 실크 등의 이국적 소재가 인기를 모았다. 또한 페이즐리, 터어키의 모자이크 문양, 멕시코의 민속문양, 열대 지방의 야자수와 동물 무늬 등과 같은 프린트가 증가하였으며 수공예적인 자수가 색다른 이국취미로 이용되었다.(그림 15)



<그림 14> 파문 프린트 소재의 원피스
Hi Fashion(89.1), p.25



<그림 15> 에스닉 록과 소재
Hi Fashion(88.5), p.36

52) Vicky Carnegy(1990), p.56

53) 짙색의, 얼룩진이란 의미로 경사에 염색을 하거나 모양을 넣어 짙색의 반점 효과를 낸 직물을 가리킨다.

셋째, 이상과 같은 패션의 영향으로 허파 록이 부상하여 벨 보텀즈(bell bottoms)와 긴 술 장식이 있는 인조 가죽의 베스트 등이 인기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텍스타일과 관련해서는 바티크, 이카트 등의 에스닉 소재들이 이용되었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감각을 혼합 사용하여 아방가르드적이고 유희적인 감각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4) 편안한 스포티 캐주얼 소재

패션의 흐름이 자연적인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스포츠 웨어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세련된, 또한 쾌적성과 기능성을 중시한 패션이 대두했다. 그리고 그것은 스포츠 웨어보다도 타운 웨어로서 일반화되었다. 예를 들면 밀리터리를 위시하여 항공 조종사(pilot) 스타일, 방한복과 방여복에서 영감을 얻은 서바이벌(survival) 스타일, 등산과 스키 웨어풍의 아웃 도어(out door) 스타일, 사파리와 식민지풍

(colonial) 스타일 등으로 이 스타일들은 90년대까지 인기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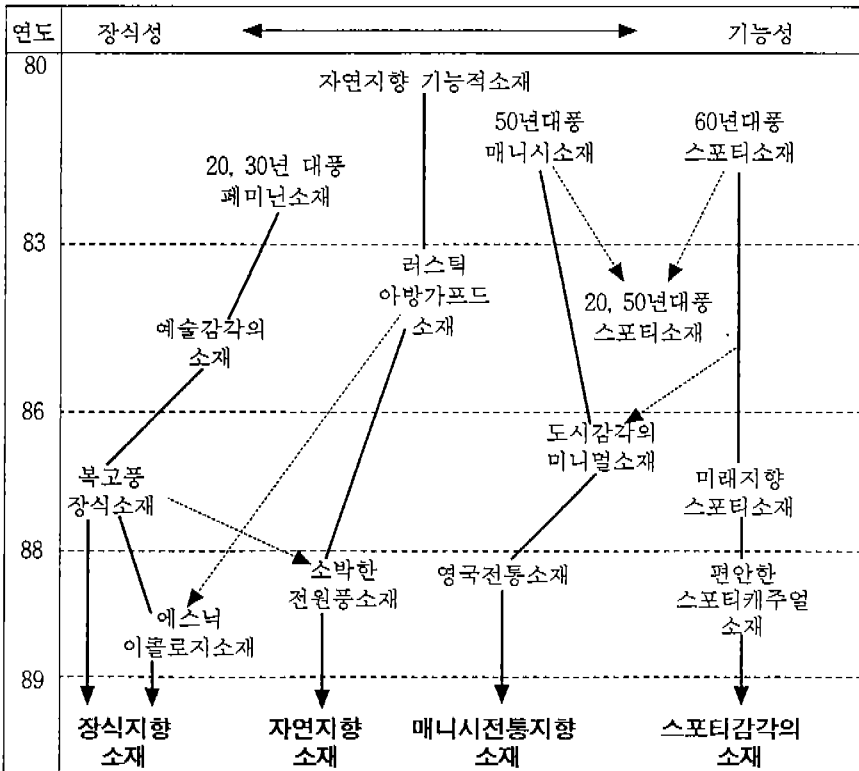
텍스타일로는 로덴(loden), 멜턴(melton) 등의 코트용 소재로부터 방수 범포, 코팅 소재, 고무, 퀴팅 소재 등이 등장했으며 워셔 가공 소재와 스웨이드, 코듀로이 등이 재인식되었다. 그 외, 80년대 전반에 걸쳐 인기를 모아 온 신축성있는 저지와 스웨트도 계속하여 이용되었다.

IV. 1980년대 텍스타일의 특징

이상으로 알아본 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경향을 <표 2>에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80년대 텍스타일의 특징 및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가지 큰 흐름의 형성

<표 2> 80년대 텍스타일의 흐름



80년대의 텍스타일은 <표 2>와 같이 4가지 큰 흐름을 형성하며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장식지향 소재

이 장식지향 소재는 무엇보다 색과 무늬, 텍스처의 의장효과에 의해 신선함과 섬세함을 표현하고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분위기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재들을 말한다. 이것은 80년대 전반에 걸쳐 크게 신장된 소재군이라 할 수 있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기의 패션 경향에 따라 표현방법을 달리하며 이 소재군은 변화해 왔다.

우선, 자연 지향과 구축적 조형미의 혼합기(80~82년)에서는 20, 30년대풍의 클래식한 여성미를 표현하였으며 아방가르드기(83~85년)에 있어서는 주로 소재가 갖는 원초적 특성을 현대의 하이테크와 접목시킴으로써 기존 텍스타일의 파괴와 창조를 시도하는 아방가르드적 예술감각에 중점이 놓여졌다. 또한 미니멀리즘과 신고전주의기(86~87년) 이후에는 유럽 전통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 고대, 중세로부터 근세를 거쳐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장식 예술들을 스타일 원천으로하여 색채와 무늬, 텍스처 등에 의한 장식화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하여 텍스타일은 복식 조형의 주된 표현 요소로서 다양하고 개성적인 표현 효과를 선도하게 되었는데 프린트와 광택감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외에도 투명한 소재에 의한 비치는 효과가 증시된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스닉과 자연주의기(88~89년)에서는 자연에 대한 의식과 그 표현이 중요성을 띠게 됨에 따라 대지, 사막, 바다 등의 자연 환경과 소수민족들을 이미지로 한 에스닉과 이콜로지 소재가 대두되어 다양하고 색다른 무늬와 텍스처 장식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종래의 민속풍에서 벗어나 도시적이고 세련된 무궁적풍으로 혼합 응용되어 표현되었으며 때로는 아방가르드적이고 유희적인 감각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2) 자연 지향 소재

이 소재는 색과 무늬에 의한 의장 효과보다는 소재 본래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소재군으로 80년대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우선, 자연 지향과 구축적 조형미의 혼합기(80~82년)에서는 70년대의 자연주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방수, 방한, 통기성과 같이 실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아방가르드기(83~85년)를 맞이하여 불규칙, 불완전과 같은 수공예 감각이 새로운 미로 승화되었고 이에 하이테크 감각을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에스닉, 자연주의기(88~89년)에서는 밝고 순진한 소녀취향이 도입되어 청결하고 부드러운 여성미와 전원 감각을 혼합 표현하였다. 이상의 흐름을 볼 때, 자연 지향 소재는 편안함과 실용성 위주에서 차츰 산뜻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변화해 왔으며 수공예, 하이테크 감각 등에 의한 텍스처 표현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소재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다른 소재와 어떻게 배합하여 표현하는가 하는 전체적인 착상 효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3) 매니시 전통 지향 소재

이 소재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신사복 소재를 기본으로 하는 소재군으로 80년대는 전반적으로 고급 지향을 배경으로 하여 고품질의 방모, 소모 등의 매니시 전통 소재가 꾸준히 나타났다. 변화 과정을 보면 자연 지향과 구축적 조형미의 혼합기(80~82년)에는 명쾌한 기하학적 라인이 유행함에 따라 이를 보다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50년대풍의 모던 클래식 소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 후에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요소를 도입한 20년대, 50년대풍 스포츠 소재가 나타났다. 또한 미니멀리즘과 신고전주의기(86~87년)에서는 전통적인 매니시 소재에 스포티한 요소를 혼합한 도시감각의 미니멀 소재가 등장하여 바디 컨셔스 라인을 표현하였으며 에스닉과 자연주의기(88~89년)에서는 영국의 전통 소재

〈표 3〉 80년대 텍스타일의 표현방법

장식지향 소재	자연지향 소재	매니시 전통지향 소재	스포티 감각의 소재
<p>〈20,30년대풍 페미닌소재〉</p> <p>클래식한 광택감의 부드러운 유동성의 오목볼록 표면변화의 아르데코 무늬의 장식 자카드의 회화풍 프린트의</p>	<p>〈자연지향 기능적 소재〉</p> <p>방수, 방한, 통기성있는 쾌적함, 착용감있는 신축성 등 기능성 중시의 곱슬거리고 드라이한 더블 페이스의</p>	<p>〈50년대풍 매니시소재〉</p> <p>진품의, 전통적인, 편안한 멜랑주 터치의 소모 스웨이드 터치의 기모 동물의 털과 같은 중고풍의, 선 워시된 흑백의, 작은 기하학 무늬 셔츠 스트라이프의 파자마 소재와 같은 50년대풍 알로하의</p>	<p>〈60년대풍 스포티소재〉</p> <p>팝 아트의 유희감각 읍 아트의 흑백 그래픽 감각 메탈릭의 하이테크 합성의 코팅의 신축성있는 구상 무늬의</p>
<p>〈예술감각의 소재〉</p> <p>수공예적인, 오목볼록 표면변화 주름진, 별집과 같은 구겨진 종이와 같은 컷 워크의 릴리프의 바디크, 이카트의 멜랑주, 그라데이션의 불확실한 반점무늬의</p>	<p>〈러스틱 아방가르드소재〉</p> <p>원시적인, 자연적인 전원적인, 소박한, 거친 누더기의, 색바랜, 엔틱풍의 불규칙한, 불완전한 비틀린, 주름진 구멍난, 워시의 드라이한, 기모된 무채색의, 흐릿한 색조의 붓터치의, 그래픽컬한 야성적인 프린트의, 체크의</p>		<p>〈20,50년대풍 스포티소재〉</p> <p>클래식 마린, 클래식 밀리터리의 유니폼적인 도시적 감각의 스트라이프의, 체크의</p>
<p>〈복고풍 장식소재〉</p> <p>유럽 전통지향의 광택의, 드레이프성의 얇은, 시 스투의 투명한 테피스트리 장식의 금사쉬인, 골드 메탈릭의 폴리츠, 추름가공의 릴리프의, 멜랑주의 자수, 레이스된 70년대풍의, 에스닉풍의 스모킹, 엠보스된 꽃무늬의, 페이즐리의</p>		<p>〈도시감각의 미니멀소재〉</p> <p>도시적 이미지의, 세련된 단순 간결한 착용감 좋은 바디 컨셔스의 신축성있는 무지와 같은 느낌의 드라이한, 평면적인 남성복 소재 느낌의 소모 무채색의 선염의, 작은 무늬의</p>	<p>〈미래지향 스포티소재〉</p> <p>바디 컨셔스의 피부 감각의 착용감 좋은 스포츠 유니폼의 신축성있는, 기능적인 방수의, 퀴팅된 광택가공의 메탈릭의 기계적인, 차가운</p>
<p>〈에스닉, 이콜로지소재〉</p> <p>원시적인, 수공예적인 아프리카풍의, 히피풍의 열대 지방의 바디크, 이카트의, 페이즐리의 스팅글된, 자수의 애니멀 프린트의 바다를 이미지로 한 대리석 모양의, 거품같은 워시의, 돛 소재의 보더무늬의, 스트라이프의 꽃무늬, 야자수 무늬의</p>	<p>〈소박한 전원풍소재〉</p> <p>프로방스의, 남부 유럽의 순진무구한, 소녀 취미의 전원풍의, 수공예적인 청결한, 부드러운 밀짚 감각의 투명한, 레이스된 마가렛 무늬의 물방울 무늬의 키친 페브릭의</p>	<p>〈영국 전통소재〉</p> <p>쿠티르적인, 고품질의 영국 전원풍의 이탈리아인 감각의 부드럽고 가벼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릴리프의 매듭의, 루프 파일의 멜랑주의 페이즐리의</p>	<p>〈편안한 스포티캐주얼소재〉</p> <p>고품질의, 세련된 쾌적한, 기능적인 타운 웨어풍의 밀리터리, 사파리풍의 항공 조종사, 서바이벌의 아웃 도어의 식민지 시대의 코트용의, 방수의, 코팅된 신축성있는 퀴팅된, 워시 가공의</p>

에 부드럽고 세련미가 있는 이탈리아인 감각을 도입하여 자연주의 패션경향의 주축을 형성하였다. 즉, 80년대 전반에 걸쳐 매니시 전통 소재는 패션의 중심 핵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스포티한 감각이라던가 부드럽고 가벼운 요소를 도입하면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리가 내린 듯한 멜랑주, 부조와 같이 입체감을 낸 릴리프, 매듭과 루프 과일을 넣은 부클레 등과 같은 표면 효과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온 것은 주목해 볼 만 하다.

4) 스포티 감각의 소재

이 소재는 원래 스포츠 웨어에 사용되었거나 그러한 감각을 소유하는 소재들로 무엇보다 기능성과 편안함 등과 같은 실용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소재군을 의미한다. 이 소재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특히 80년대는 스포티 감각의 소재가 큰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영역도 또한 확대되었다. 그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80년대 초기에 팝 아트 유희감각과 읍 아트의 그래픽컬한 효과를 표현한 60년대풍의 스포티 소재로부터 시작하여 클래식 마린, 클래식 밀리터리와 같은 20, 50년대풍 스포티 소재와 하이테크적인 메탈릭 효과를 표현한 미래지향 스포티 소재가 80년대 중반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말기에는 아웃 도어, 서바이벌 스타일 등과 같이 편안한 스포티 캐주얼 소재가 인기를 모았다. 80년대 전반에 걸쳐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축성있는 소재의 신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피부와 같은 감각을 지니는 소재가 강하게 요구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스포츠 소재들에 다양한 후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기능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움을 표현한 전통과 하이테크와의 접목도 또한 80년대 전반에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장식성의 확대

〈표 2〉를 보면 80년대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텍스타일이 기능성 위주에서 장식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80년대 텍스타일의 흐름에서 나타난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장식성의 확대이다. 특히 텍스타일의 시각적 효과와 촉각적 효과에 의한 재질의 특성, 즉 텍스처에 의한 장식성의 추구야말로 80년대 텍스타일에 나타난 특징이다. 그것은 그 때까지의 텍스타일 디자인이 평면적인 천 위에 색과 무늬를 디자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점에 반해 실의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조의 조직과 후처리 가공을 통해 질감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80년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텍스처 효과가 추구되어 왔는데 그 아이디어의 원천 또한 다양하다. 우선 시간적 측면으로는 과거의 모든 양식으로부터 미래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이용되었으며 공간적 측면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 환경과 민속 공예품을 위시하여 기타 인공물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결, 돌, 바위, 대리석, 벽, 금속, 알미늄, 거울, 밀짚과 왕골, 물의 파문, 깃털, 동물의 가죽, 과일 껍데기, 도기, 유리, 종이, 커피 주머니 등 각양각색이다.

3. 이미지의 변형 및 혼합화

80년대는 기존의 개념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텍스타일이 창조된 시대이다. 이는 소재가 갖는 종래의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소재에 대한 대담하고 전위적인 시도가 꾸준히 추구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80년대는 기존의 소재에 대한 이미지의 변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장식지향 소재, 자연지향 소재, 매니시 전통지향 소재, 스포티 감각의 소재들이라 하더라도 각 시기마다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데

있어 양극을 이루는 이미지들을 서로 혼합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소재를 창조한 예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도시의 세련된 소재에 자연의 요소를, 단순한 무지의 매니시 소재에 여성적인 장식을 도입하거나, 얇고 가벼운 소재와 두껍고 무거운 소재, 차가운 감각의 소재와 따뜻한 느낌의 소재를 혼합한 경우가 그 예이다.

V. 결 론

패션을 창조하는데 있어 텍스타일은 언제나 그 출발점이 된다. 혹은 창조는 토대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텍스타일이 갖는 중요성은 큰 것인데 80년대 까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없었다.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텍스타일이 패션의 특징을 결정짓게 됨으로써 텍스타일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관점 하에 80년대 패션의 흐름과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텍스타일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이 부각하게 된 배경을 시대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텍스타일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경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과 표현 방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80년대의 패션은 생활의 상승지향과 고급화 경향, 예술과 역사, 문화 지향, 신기술과 감성의 접목을 배경으로 하여 의복의 질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장식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의복의 정서적, 차별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복의 부차적 요소에 지나지 않았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텍스타일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 시각적, 감성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다.

패션과 텍스타일의 특성에 따라 4 시기로 나누어 본 80년대 패션의 텍스타일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자연 지향과 구축적 조형미의 혼합기(80-82년)에는 자연 지향의 기능적 소재, 50년대풍 매니시 소재, 20, 30년대풍 페미닌 소재, 60년대풍 스포티 소재가

등장하였다. 아방가르드기(83-85년)에는 러스틱 아방가르드 소재, 예술 감각의 소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미니멀리즘과 신고전주의기(86-87년)에는 도시 감각의 미니멀 소재와 복고풍 장식 소재가 나타났다. 그리고 에스닉과 자연주의기(88-89년)에는 영국 전통 소재, 소박한 전원풍 소재, 에스닉, 이콜로지 소재, 편안한 스포티 캐주얼 소재가 등장하였다.

이상의 경향으로부터 본 80년대 텍스타일의 특징은 다음의 3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80년대 텍스타일은 장식 지향 소재, 자연 지향 소재, 매니시 전통 지향 소재, 스포티 감각의 소재와 같이 크게 4가지 큰 흐름을 형성하며 변화해 왔다. 둘째, 장식성의 확대로, 텍스처에 의한 장식성의 추구는 80년대 텍스타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소재가 갖는 종래의 이미지를 초월하여 서로 다른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변형시킴으로써 전혀 새로운 감각의 소재를 창조하는 이미지의 변형 및 혼합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바야흐로 텍스타일은 80년대를 거쳐 의복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서 새로운 텍스타일 경향은 새로운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기에 이르렀으며, 보다 창조적인 의복 창작을 위해서는 그에 합치한 텍스타일의 연구 개발이 필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장식성, 유행성, 참신성, 경제성 등 텍스타일에 대한 현 패션계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양 각색의 소재들이 개발, 사용되고 있는 현재, 보다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텍스타일의 창작을 위해서는 예술과 과학의 접목을 통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시점을 감안하여 텍스타일의 경향 파악과 함께 그 표현 방법을 시각적, 감성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문미영, '인도네시아 이kat 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1995.11
- 이인성, '일상적으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은 소재와 테크닉에서 살펴본 의상창작과 예술',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1
- 이주현, '포스트 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1
- 이호진,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권, 1997.5
- 조규화 편저, 복식사전, 서울:경춘사, 1995
- 케네스 베이커저, 김수기역, 미니멀리즘, 서울:열화당, 1993
- Jennifer Ruby, The 1980s, London : B. T. Batsford Ltd., 1990
-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NY:Rizzoli, 1991
- Vicky Carnegy,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London:B.T.Batsford, 1990
- 荻村昭典, 服装學への道しるべ, 東京:文化出版局, 1987
- 織田 晃, バリコレクション20, 東京:織研新聞社, 1996
- Gap, 東京:Gap Japan, 1980-89
- 現代構造研究所編, テキスタイル・クリエーション(1), 東京:繊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 1991
- 現代構造研究所編, テキスタイル・クリエーション(2), 東京:繊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 1991
- 田中千代, 新服飾事典, 東京:同文書院, 1995
- Designer's File, Tokyo:Pia, 1993
- 日本流行色協會編, "戦後のファッションと流行色", 月刊流行色, 東京:日本流行色協會, 1993
- Hi Fashion, 東京:文化出版局, 1980-89
- Fasion Color編, Fashion Color(別冊), 東京:日本色研事業株式会社, 1993.10
- 深井晃子, ファッション・キーワード, 東京:文化出版局, 1993
- 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編, 'スポーツウェア', 装苑アイNo.11, 東京: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 1993
- 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編, '素材', 装苑アイNo.14, 東京:文化學院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ー, 1993
- 南精, バリモード200年II, 東京:文化出版局, 1990
- 廉恵晶, 荻村昭典, 'バーンソン理論から見たカジュアルウェアの變化構造',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學會 Vol 3 : 東京, 1997.12, pp.95-108

ABSTRACT

A Study on Fashion Textile Trend and Characteristics in the 1980s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1. Background on the 1980s : The 1980s can be characterized as a era of rising expectations over the quality of life. Interest in art, history, culture, and new technology increased to appeal to a greater audience. In fashion, these changes led to greater focus on quality and unique stylishness as fashion represented a medium through which luxury and refined tastes could be expressed.
2. Textile Trends of the 80s Divided into 4 Periods : The period of 1980-82 saw the mixture of natural lines with constructive lines. The textiles used in fashions in this period can be characterized by natural materials, mannish materials of the 1950s, feminine materials of the 1920s and 30s, and sporty materials of the

1960s. The period of 1983-85 was an avante garde period which used rustic avante-garde materials and art craft materials. The period of 1986-87 can be described as minimalistic and neo-classical which incorporated materials which represents a metropolitan feel, retro decorative materials and sporty, futuristic materials. Lastly, the period of 1988-89 produced ethnic and natural fashions which relied on traditional British materials, country elegant and innocent look fabrics, ethnic and ecology-minded materials, in addition to comfortable

and sports casual materials.

3. Characteristics and methods of expression for textiles in the 1980s. : In the 1980s, the development of textiles have can be divided into 4 distinct patterns: decorative materials, natural materials, mannish traditional materials, sporty materials. In generals, textiles have increased in their decorative nature-especially decoration by texture. Textile have also incorporated the mixture of contrasting themes in order to create new fabrics.